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 활동 보도

2015년 9월 14일
(월요일)

강북신문 7면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동우 의원

“우이령길 상시개방 적극 검토해달라”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 우이동교통광장 개방도 주장

강북구의회 장동우 부의장이 8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개통과 관련 북한산케이블카 설치 및 우이령길 이용인원 확대방안에 대한 발언을 펼쳤다.

장 의원은 2009년 9월에 첫삽을 뜬 후 내년 11월중에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운행에 들어가는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사업에 대해 접근성과 이용인원의 확대를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우이령길 이용인원의 확대방안을 밝혔다. 우이령길은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와 강북구 우이동을 연결하는 총 6.8km 폭 6m의 규모로 개설되어 있는 곳으로 최근 강북구에서 1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350m를 우기시 추가적인 지반침하 및 토사 유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 보도블럭 제거와 경계석을 설치하는 등 정비공사를 실시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우이령길은 하루 천명을 인터넷으로 접수받는 탐방예약제를 실시하여 그 유동인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환경보호와 안보차원에서 이렇게 소수 인원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이동 유원지 음식점은 하루 천명의 유동인구로는 상권형성을 통한 매출의 증가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음식점 상점주의 생계



장동우 의원

보호차원에서 인원 제한 없이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장 의원은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문제와 관련해 “북한산 케이블카의 설치와 관련 자연파괴에 대한 환경론자의 반대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북한산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광객의 접근성 증진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이동교통광장의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등산객들의 주차장 이용가용면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이동교통광장 주차장은 공단의 견인차량보관소와 청원환경 대형장비 주차, 노선버스 야간 주차, 경전철 공사와 관련한 임차 등으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어 실제 북한산을 이용하고 있는 등산객들의 주차장이용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등산객들의 주차장 이용가용면수를 늘린다면 우이동 유원지 등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세밀히 검토하여 우이동교통광장 주차장 운영에 반영하여달라고 요구했다.

동북일보 4면

5분 자유발언

북한산케이블카 설치 및 우이령길 이용인원 확대방안에 대해...

장동우 의원
(새누리당/수유동, 우이동, 인수동)

지난 강북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동우 의원은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개통과 관련하여 북한산케이블카 설치 및 우이령길 이용인원 확대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장동우 의원은 2009년 9월에 첫 삽을 뜬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사업이 총사업비 6,465억을 투입하여 드디어 내년 11월중에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운행에 들어간다고 버스 및 택시 등의 교통수단으로만 접근이 가능하였던 우이동과 북한산이 드디어 한꺼번에 2분 30초 간격으로 240여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경전철이라는 교통수단이 확보될 예정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의 접근성 용이로 세 가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장 의원은 “우이령길 이용인원의 확대방안에 대해 최근 1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우이령길 정비 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350미터를 우기시 추가적인 지반침하 및 토사 유실의 위험성을 제거하고자 기존 보도블럭 제거와 경계석을 설치하였다. 우이령길은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와 강북구 우이동을 연결하는 총 6.8킬로미터 폭 6미터의 규모로 개설되어 있다. 우이령길은 하루 천명을 인터넷으로 접수받는 탐방예약제를 실시하여 그 유동인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환경보호와 안보차원에서



▲ 장동우 의원

이렇게 소수 인원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이동 유원지 음식점 상점주의 의견으로는 하루 천명의 유동인구로는 상권형성을 통한 매출의 증가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며,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음식점 상점주의 생계 보호차원에서 인원 제한 없이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국립공원관리공단, 군부대, 양주시와 적극 협의 검토해달라” 요청하였다.

두 번째로,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맑은 날이면 인산봉은 너무나도 위풍당당하게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남야공의 테이블 탑 마운틴, 호주 시드니의 블루 마운틴, 스위스의 융쿠라우의 경우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반면 빼빼은 케이블카 등 인프라가 설치되지 않아 겨우 소수의 관광객들이 포터들의 도움으로 산을 오르고 있어, 그 수입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북한산 케이블카의 설치와 관련 자연파괴에 대한 환경론자의 반대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산이

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광객의 접근성 증진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정에서는 북한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계획과 관련 사전 치밀한 준비를 하여 반드시 케이블카가 설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길 당부 하였다.

장동우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이동교통광장의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 하였다. 현재 우이동교통광장 주차장은 공단의 견인차량보관소와 청원환경 대형장비 주차, 영산여객 야간 주차, 경전철 공사와 관련한 임차 등으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어 실제 북한산을 이용하고 있는 등산객들의 주차장이용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등산객들의 주차장 이용가용면수를 늘린다면 우이동 유원지 등의 상권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세밀히 검토하여 우이동교통광장 주차장 운영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장동우 의원은 “얼마 후에는 통일교육원 건너편에 근현대사기념관이 준공되어 강북구가 역사기 숨쉬는 고장임을 널리 알릴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에 대한 구정장님의 강력한 의지는 본 의원에게는 피부로 다가서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구정장께서는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역사문화관광도시’라는 강북구의 구정방향을 걸맞게 본의원의 세 가지 질의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박은주 기자 jh1718@naver.com)

◆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 - 장동우 의원

“우이령길 상시개방 적극 검토해 달라”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 우이동교통광장 개방도 주장



강북구의회 장동우 부의장이 8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개통과 관련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및 우이령길 이용인원 확대방안에 대한 발언을 펼쳤다.

장 의원은 2009년 9월에 첫삽을 뜬 후 내년 11월중에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운행에 들어가는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사업에 대해 접근성과 이용인원의 확대를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우이령길 이용인원의 확대방안을 밝혔다. 우이령길은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와 강북구 우이동을 연결하는 총 6.8km 폭 6m의 규모로 개설되어 있는 곳으로 최근 강북구에서 1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350m를 우기시 추가적인 지반침하 및 토사 유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 보도블럭 제거와 경계석을 설치하는 등 정비공사를 실시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우이령길은 하루 천명을 인터넷으로 접수받는 탐방예약제를 실시하여 그 유동인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환경보호와 안보차원에서 이렇게 소수 인원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이동 유원지 음식점은 하루 천명의 유동인구로는 상권형성을 통한 매출의 증가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음식점 상점주의 생계 보호 차원에서 인원 제한 없이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장 의원은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와 관련해 “북한산 케이블카의 설치와 관련 자연파괴에 대한 환경론자의 반대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북한산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광객의 접근성 증진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이동교통광장의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등산객들의 주차장 이용가용면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이동교통광장 주차장은 공단의 견인차량보관소와 청원환경 대형장비 주차, 노선버스 야간 주차, 경전철 공사와 관련한 임차 등으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어 실제 북한산을 이용하고 있는 등산객들의 주차장이용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등산객들의 주차장 이용가용면수를 늘린다면 우이동 유원지 등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세밀히 검토하여 우이동교통광장 주차장 운영에 반영하여달라고 요구했다.